

마오쩌둥(毛澤東) 文化思想의 이론기원과 民衆文化觀

김형열*

【목 차】

1. 머리말
2. 毛澤東 文化思想의 이론적 기원 : 人民主義
3. 延安時期 毛澤東의 民衆文化觀과 文化政策
4. 맺음말

【초록】

마오쩌둥 문화사상의 가장 큰 특징은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대중성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마오쩌둥의 문화사상에서 드러나는 문화 주체와 내용에 있어서의 인민성 또는 대중성은 그가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중국 공산혁명의 성격을 나타내어 주는 특징이기도 하다. 특히 혁명의 주체로서 농민을 자각하고 농민을 통한 민족혁명으로써 공산혁명의 임무를 완수해 낸 것은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정통적 교의에서 벗어난 것으로서 중국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독특한 성격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 옌안 시기 마오쩌둥이 정립하고 발전한 민중문화관은 매우 구체적이고 명확한 것으로 그가 의미한 인민 또는 군중은 곧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농민과 노동자 및 병사를 의미하는 것이었고 문화 정책의 내용은 곧 농민과 노동자 및 병사를 위한 문화의 건설, 즉 문화 대중화였다.

【키워드】 마오쩌둥, 문화사상, 민중관, 문화정책, 대중운동, 옌안 시기

* 동의대학교 사학과 부교수 (hyongyol@deu.ac.kr)

1. 머리말

마오쩌둥(毛澤東)은 중국 공산당 창립인 중의 한 사람이자, 내전과 항일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국면 속에서도 중국 사회현실에 적합한 사상과 전략을 통해 중국 공산당을 승리로 이끌며 中華人民共和國를 건립한 주역으로서, 그 역할과 영향력이 중국사뿐만 아니라 세계사 속에서도 결코 작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정치 인물이다.

중국 공산당의 창도자이자 중화인민공화국의 국부로 일컬어지는 마오쩌둥에 대한 연구는 중국 내외에서 광범위하게 진행되며 수많은 결과물을 도출해 내었다. 이러한 연구는 ‘毛澤東主義’로 일컬어지는 그의 정치사상 또는 철학사상에 대한 연구로부터 시작하여, 초기 농민운동과 공산주의 운동, 소비에트구에서의 정치활동, 장기간에 걸친 국공내전 과정 속에서 수립된 그의 민족주의적 투쟁노선, 광범위한 인민대중을 동원하여 反封建과 反帝國主義를 달성하고자 한 대중노선, 중화인민공화국 건립 이후 사회주의 공업화 노선, 급진적 좌경화 운동으로 일컬어지는 문화대혁명과 당내 정치 투쟁 등에 이르기까지 마오쩌둥의 생애 전반에 걸쳐 거의 무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그 중에서도 마오쩌둥의 민중관 또는 대중운동관에 기초한 문화사상과 관련된 연구 또한 국내외에서 폭넓게 진행되었다.

국내의 주요 연구논문을 살펴보자면, 일찍이 金鐘圓은 「5·4 운동기의 毛澤東의 사상과 활동」(『역사와 세계』, 제14집, 1990.06)에서 청년 시기 마오쩌둥의 초기 사상과 활동에 대한 상세한 서술을 통해 5·4 시기의 문화적 경향 속에서 마오쩌둥이 취하게 된 학문적 동향을 알아봄과 동시에 이를 기초로 마르크스주의자로 변모하게 된 사상적 동인에 대해 천착하였다. 또 金祺曉는 「5·4운동 시기와 문화대혁명 시기 유교 비판」(『중국사연구』, 제96집, 2015.06)에서 신중국 수립 후 마오쩌둥이 비록 중국의 전통사상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중국의 역사를 계승하고자 한 의지를 지니고 있었지만 공자로 대표되는 ‘舊禮教’와 ‘舊思想’에 반대하고 사회주의 문화에 비해 공자의 경학을 더 낮은 지위에 있는 것으로 평가하게 되는 과정에 대해 탐색하였다. 마오쩌둥의 민중관에 기초한 실천적 문화사상이 확연히 드러나는 연안 시기의 문예관 즉 민중문화 사상에 대해 연구한 저작으로는 김은희의 「延安의 文化運動論과 知識人 연구 - 延安 前期의 文藝界를 중심으로」(『중국문학』, 제94집, 2018)와 김시준의 「〈연안 문예좌담회상에서의 강화〉에 관하여」(『중어중문학』, 제10집, 1988.10)를 들 수 있다. 김은희의 연구는 홍군의 대장정 이래로 延安時期가 시작되어 수많은 좌익문단 작가들이 연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형성된 연안 전기의 문화기구와 잡지를 소개하면서 이들 간에 촉발된 문화운동론 또는 문예대중화론의 성격 및 그 논전에 대해 상세히 다루고 있다. 김시준의 연구는 1942년 마오쩌둥이 ‘整風運動’을 선언한 이후, 연안전기 전반에 걸쳐 분열된 문단의 사상경향을 조정하고 정풍운동에 대한 반대여론을 무마하며 문예운동의 정치화를 진행하고자 문학가, 음악가, 미술가 등 100명에 달하는 문예인사를 소집하여 실시한 〈문예좌담회〉의 내용과 성격에 대해 천착하였다. 또한 마오쩌둥의 문예사상에 대해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연구로는 韓淸玉, 李承熙의 「毛澤東文藝思想的當代認識」(『국제지역학논총』, 제5집, 2012.06)을 들 수 있는데, 이 연구는 마오쩌둥 문예사상의 성격을 인민성, 대중성, 정치성으로 규정하고 마오쩌둥

이 대중운동을 실천하기 위해 문화사상을 실현하고자 한 것에 주목하였다.

한편 근래 중국에서 나온 마오쩌둥의 문화사상 및 문화정책에 관한 주요 연구는 다음과 같다. 먼저 마오쩌둥의 문화사상에 관한 연구로는 梅景輝, 葉玲慧의 「毛澤東文化建設思想與中國傳統文化的交融共生 - 以延安時期爲例」(『湖南科技大學學報(社會科學版)』, 第20卷 第6期, 2017年11月), 陳登才의 「毛澤東廉政文化思想的理論思考」(『中國特色社會主義研究』, 2014年11月), 許思義의 「毛澤東“文化決定論”思想及其理論價值」(『蚌埠黨校學報』, 第4期, 2005年)를 들 수 있다. 또한 마오쩌둥의 문화정책과 관련된 연구로는 羅建平, 何歡의 「毛澤東文化政策思想的特點及其當代價值」(『鄭州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第45卷 第3期, 2012年5月) 및 「毛澤東文化政策思想探析」(『河南社會科學』, 第20卷 第4期, 2012年4月)를 들 수 있다. 이들 연구들은 신중국 수립 전후 마오쩌둥이 발전시킨 문화사상의 특징을 살펴보고 이를 실제 대중운동과 정치운동에 적용시키는 과정에서 등장한 문화정책의 성격에 대해 개술하고 있으며 특히 마오쩌둥 문화사상의 가치를 현대에 접목시키면서 이를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마오쩌둥의 주요한 혁명 전략으로 손꼽을 수 있는 대중노선이 정립되는 데 일정한 관련을 가지는 사상적 경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민중운동을 창도하는 대중노선은 대중이 소비하고 차용하는 문화의 내용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며 이러한 문화적 성격을 형성해 내는 실천단계가 바로 문화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마오쩌둥의 민중에 대한 관점은 시종 마르크스-레닌주의에서 차용하지 않는 아니 오히려 그 영향성에 대해 반대하고 무시하는 대상인 농민의 혁명적 자발성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그의 문화사상에서 매우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드러나며 이는 문화정책을 통해 실천적으로 구현되면서 농민민족혁명이라는 혁명 전략으로 정립된다.

이 글에서는 먼저 마오쩌둥이 형성하게 된 민중문화 사상의 이론적 기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마오쩌둥이 중국혁명의 주체로 상정한 인민, 특히 농민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집중하게 되는 배경과 원인이 무엇이며 이러한 인민과 중국혁명과의 상관관계는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다음으로는 마오쩌둥이 생각한 인민의 성격과 작용이라는 민중관을 바탕으로 이들 인민을 동원하고자 한 전략적 차원에서의 문화 정책이라는 맥락 속에서 인민이 향유할 문화 즉 민중문화를 어떻게 드러내하고자 하였고 인민과 문화 간에 어떠한 상호 관계를 형성시키고자 하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 毛澤東 文化思想의 이론적 기원 : 人民主義

마오쩌둥 문화사상의 가장 큰 특징은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대중성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마오쩌둥은 당시 중국 사회를 잠식하고 있던 구문화, 즉 구체제의 상류층 또는 제국주의 지배세력 및 그와 연결된 買辦에 종속된 문화가 아니라, 농민·노동자와 農工 출신의 병사들을 교육하고 또 그들에 의해 향유되는 문화를, 구문화를 대체할 신문화이자 진정한 문화로서 제시하였다. 이처럼 마오쩌둥의 문화사상에서 드러나는 문화 주체와 내용에 있어서의 인민성 또는 대중성은 그가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중국 공산혁명의 성격을 나타내어 주는 특징이기도

하다. 특히 혁명의 주체로서 농민을 자각하고 농민을 통한 민족혁명으로써 공산혁명의 임무를 완수해 낸 것은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정통적 교의에서 벗어난 것으로서 중국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독특한 성격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마오쩌둥이 시종일관 새롭게 건설하고자 한 신중국의 신문화에서 주도적 지위를 부여한 ‘인민’ 즉 ‘농민’이 혁명을 이끌 주체로서의 자격과 능력을 지니고 있으며 앞으로의 혁명 전략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자각했던 것은 언제부터일까? 마오쩌둥이 ‘인민’에 대해 주목하고 집중하기 시작한 것은 5·4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볼 수 있다.

마오쩌둥은 長沙의 湖南 第一師範學校를 졸업하고 ‘勤工儉學’ 운동에 협조하기 위해 1918년 8월 19일 베이징에 도착하였다.¹⁾ 베이징에서 마오쩌둥은 楊昌濟²⁾의 소개로 당시 北京大學 교수이고 도서관 主任(관장)이었던 李大釗 밑에서 도서관 助理員으로 취직하여,³⁾ 책을 분류하고 독자들에게 책을 가져다주고 반납한 책을 서가에 꽂는 일을 하였다. 후일 마오쩌둥이 에드가 스노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도서관에서의 그의 직위가 너무 낮아 신문을 열람하러 오던 傅斯年, 羅家倫 등 당시 신문화운동 지도자들에게 말을 붙이기도 어려울 정도였다고 하였다.⁴⁾ 그는 베이징대학에서 강의를 듣기 위해 ‘哲學會’나 ‘新聞學研究會’에 입회하였고, 특히 ‘新聞學會’의 강사였던 邵飄萍으로부터 ‘新聞學’ 관련 업무와 지식을 습득하였다. 또 그는 邵로부터 무정부주의에 관한 것을 배웠고 무정부주의가 제창하는 많은 제안에 찬동하게 되었다.⁵⁾ 마오쩌둥의 베이징 체류 시기는 그가 마르크스주의를 접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그는 1949년 5·4 시기를 회고하며 “10월 혁명의 한발의 포성이 우리들에게 마르크스·레닌주의를 가져다주었다. 10월 혁명은 전 세계와 중국의 선진 지식인을 도와 무산계급의 우주관을 이용하여 국가 운명을 관찰하는 도구로 삼게 하였고 자신의 문제를 다시 한 번 살펴 볼 수 있게 하였다.”⁶⁾고 언급한 바 있었다. 5·4 운동 기간은 중국 사상계의 큰 전환점이었다.⁷⁾ 마오쩌둥은 “5·4 운동 기간이 중국의 정치적, 지적 생활에 있어서 ‘부르주아’의 지배와 ‘프롤레타리아’의 지도 사이의 분수령이었다.”⁸⁾고 말할 정도였다. 중국 사상계가 마르크스주의로의 전환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게 된 것은, 마오쩌둥이 베이징 도서관에서 일할 때 그 주임으로 있었으며 마오쩌둥의 학문적 스승이라고 할 수 있었던 리다자오의 사상적 변화로부터

1) 李銳, 『毛澤東의 早期革命活動』, 湖南人民出版社, 1980, p.150.

2) 楊昌濟는 제1사범학교 시절 마오쩌둥에게 많은 영향을 준 교수로, 1920년 마오쩌둥과 결혼한 楊開慧의 부친이다. 그는 일본, 영국, 독일에 유학하여 윤리학과 논리학을 전공하였으며 후난 제1사범학교를 거쳐 국립 베이징대 교수를 역임하였다. 그의 추천으로 마오쩌둥은 파울젠(Friedrich Paulsen)의 『윤리학체계(A System of Ethics)』를 읽고 이에 대한 논평을 쓰기도 하였다.(체스터 탄, 『毛澤東思想의 전개』, 민둥기 편, 『中國現代史의 構造』 청람, 1983, p.256 참조)

3) 마오쩌둥은 훗날 1918년 베이징 체류 시기를 돌아보며 리다자오가 자신에게 매우 친절했으며, 글자 그대로 ‘참스승’이었던 ‘선하고 진실한 인물’인 그를 만난 것은 행운이었다고 회상하였다.(해리슨 E. 솔즈베리 저, 박윌라·박병덕 역, 『새로운 황제들』, 다섯수레, 2013, p.33 참조)

4) 에드거 스노 저, 홍수원·안양노·신흥범 역, 『중국의 붉은 별』, 두레, 2017, pp.191-192.

5) 李銳, 앞의 책, pp.173-176 ; 蕭三, 『毛澤東同志의 青少年時代和初期革命活動』, 中國青年出版社, 1980, pp.186-187.

6) 毛澤東, 『論人民民主專政』, 『毛澤東選集』(第4卷), 人民出版社, 1969, p.1360.

7) 金鐘원, 「5·4 운동기의 毛澤東의 사상과 활동」, 『부대사학』, 제14집, 1990.6, pp.151-153.

8) 毛澤東, 『新民主主義論』, 『毛澤東選集』(第2卷), 河北人民出版社, 1968, pp.623-670.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17년 러시아 10월 혁명의 성공은 리다자오를 깊이 고무시켰고 비록 1년여의 시간이 필요하기는 하였지만 그로 하여금 마르크스주의를 연구하고 받아들이게 하는 데 큰 영향을 주었다. 10월 혁명 이후 리다자오는 볼셰비즘과 레닌주의의 세례 속에서 그 기초가 되는 마르크스 학설을 연구하기 시작하였고 이와 함께 러시아 혁명과 관련된 역사를 탐색하였다. 이 과정에서 그는 농민을 중심으로 하는 민중에 대한 인식과 함께 중국적 공산주의 운동이라는 새로운 색채의 공산주의 전략을 수립하는 데 적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될 사상인 러시아 人民主義(Narodnikism)를 접하게 되었다. 러시아 인민주의 사상은 반제·반봉건의 과제를 짊어지고 있었던 중국사회의 상황에 접목되어 리다자오로 하여금 당시 중국이 성취해야 할 사회혁명의 동력을 깨우치고 인식하게끔 해주었다. 그리고 이것은 중국에서 농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들의 역량을 자각함으로써 사회혁명의 주요세력으로 삼고자 한 리다자오의 인민주의적 민중관에서 점차 드러났다. 즉 리다자오는 인민주의의 영향을 받아 그가 일본 유학기에 형성한 자산계급 민주사상에서 보였던 막연한 ‘민중’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중국의 인민을 대표하는 ‘농민’으로 눈을 돌릴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비마르크스주의적 사회주의 사상을 거치면서 그는 이후 중국적 프롤레타리아와 사회주의혁명의 중국적 실현을 모색하는 데 필요한 민중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⁹⁾

리다자오의 인민주의적 관점은 1919년 2월 그가 『晨報』에 발표한 「青年與農村」이란 글에서 두드러지게 표현되었다. 이 글에서 그는 러시아를 예로 들면서 중국 청년이 농촌에 가서 농촌을 개발하고 농촌을 개조할 것을 호소하였다.¹⁰⁾ 그가 「青年與農村」에서 사용한 말들은 모두 인민주의를 표방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리다자오는 중국 청년이 러시아 인민주의자를 본받고 그 뒤를 따라 민중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인식했던 것이다. 또 리다자오는 인민주의의 농촌 지향적 성향과 노동존중 사상에 영향을 받아서 “인민에게로”라는 주장을 중국 청년 속에서 확대 실시하였다. 따라서 그는 중국 청년들이 농촌으로 가서 농민과 함께 땀 흘려 일하며 그들을 계몽시키고 농촌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던 것이다.¹¹⁾ 또한 농민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리다자오는 러시아 인민주의자와 마찬가지로 농민을 중시하여 농민을 사회의 주요세력으로 보았다. 그러므로 청년 지식인들이 농촌으로 가서 노동단체에 가입하고¹²⁾ 현대의 신문명을 농촌에 도입하여¹³⁾ 농민의 역량을 자각시킴으로써 그들을 혁명주체세력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였다.¹⁴⁾ 이는 1925년 말 그가 「土地與農民」에서 국민혁명의 완성을 위해 농촌혁명이 맡아야 할 역할에 대해 생각하며 농민의 혁명 참여가 곧 국민혁명의 성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언한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었다.¹⁵⁾ 그리고 이를 통해 농

9) 김형열, 「李大釗 民主思想의 發展過程 - 民衆觀의 變遷過程과 관련하여」, 『중국사연구』, 제34집, 2005.2, pp.230-232.

10)李大釗, 「青年與農村」, 『晨報』; 『李大釗選集』, 人民出版社, 1978, p.146.

11)李大釗, 『李大釗選集』, 앞의 책, p.150.

12)李大釗, 『李大釗選集』, 앞의 책, p.150.

13)李大釗, 『李大釗選集』, 앞의 책, p.146.

14) 김형열, 앞의 글, pp.232-234.

15)李大釗, 「土地與農民」, 『政治生活』, 第62-67期, “중국의 浩대한 농민 군중이 만약 잘 조직되어 국민혁명에 참가한다면 중국 국민혁명의 성공은 멀지 않았다.”; 『李大釗選集』, p.535.

민을 사회의 주요 혁명세력으로 보는 인민주의 사상이 일관되게 계승되어 결국 농민혁명을 중국혁명의 본질적 요소로 보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¹⁶⁾ 이러한 리다자오의 인민주의적 민중관은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거의 같은 시기에 마오쩌둥의 글에서도 발견되며, 농민의 혁명적 잠재력에 대한 자각은 마오쩌둥 사상과 중국 혁명 전략의 일관된 내용으로 자리 잡게 됨을 알 수 있다. 즉 마오쩌둥은 1919년 『湘江評論』에 기고한 글들을 통해서 민중의 역량에 대해 자각하였고 1927년 「湖南農民運動考察報告」에서는 농민을 중국혁명의 원동력으로 상정하였으며, 이후의 혁명 전략에서 농민을 중국의 주요 혁명세력으로 파악함으로써 농민민족혁명을 통해 중국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완성하고자 했던 것이다.

신문화운동 시기에는 노선이 분화되어 陳獨秀, 李大釗, 魯迅 등 『新青年』 및 『每週評論』을 주관하는 좌파와, 文學改良 및 白話文 제창에 적극적인 胡適 등의 우파가 있었고, 이 밖에도 무정부주의와 톨스토이의 범노동주의로 갈라져 있었기 때문에 청년 지식인들은 무엇이 옳은 노선인지 결정하기 어려웠다. 좌파의 선구격이었던 리다자오 또한 완전하게 마르크스주의를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를 스승으로 삼았던 마오쩌둥은 아직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신봉할 단계에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그는 당시의 자신에 대해서 “당시 나는 당혹스러웠는데 우리들의 표현을 쓴다면 활로를 찾고 있었다.”¹⁷⁾고 심중소회를 밝힐 정도였다. 그러나 마오쩌둥은 이 때 정치에 대한 관심이 깊었고 또 점점 급진적인 경향을 띠게 되었다. 마오쩌둥은 리다자오 밑에서 베이징대 안에 개설되었던 ‘마르크스주의 연구회’에 참가하여 마르크스주의 학설을 연구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리다자오 밑에서 급속하게 마르크스주의의 방향으로 성장하였다.¹⁸⁾

마오쩌둥은 1919년 4월 長沙로 돌아온 후 5·4 운동의 영향을 받아 학생의 정치활동을 촉진시키는 일을 맡았다. 학생들의 정치활동에 큰 영향을 준 것이 1919년 7월 마오쩌둥에 의해 창간된 『湘江評論』이었다. 마오쩌둥은 창간선언에서 다음과 같이 민중의 힘에 대해 강조하였다.

‘세계혁명’을 외치는 소리가 왕성하게 주창되고 ‘인류해방’의 운동이 맹렬히 전개되면서 우리들이 이전에는 의심을 하지 않았던 문제, 곧바로 논취하지 않았던 방법, 대개 말하는 것을 주저하고 걱정했던 것이 지금에서는 모두 그 옛 모습을 바꾸려고 하고 있다. …… 세계에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밥을 먹는 문제가 가장 크다. 어떠한 힘이 가장 강한가? 민중이 연합한 힘이 가장 강하다. 무엇을 두려워해서는 아니 될까? 하늘을 두려워하지 마라! 유령을 두려워하지 마라! 죽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관료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군벌을 두려워하지 마라! 자본가들을 두려워하지 마라!¹⁹⁾

그리고 지금까지 인류가 종교, 문학, 정치, 사회, 교육, 경제, 사상의 면에서 부단하게 개혁을 추진하여 왔는데 이는 모두 강권에 대항한 개혁으로 민주주의의 수립을 위해서는 강권의

16) 李帆, 「李大釗與民粹主義」, 『吉林大學社會科學學報』, 1994.5, pp.15-20 참조.

17) 李銳, 앞의 책, p.179.

18) 金鐘원, 앞의 글, pp.153-154.

19) 毛澤東, 「湘江評論創刊宣言」, 毛澤東文獻資料研究會 編, 『毛澤東集』(第1卷), 蒼蒼社, 東京, 1983, p.53 ; 다케우치 미노루 편저, 신현승 역, 『청년 모택동』, 논형, 2005, p.168.

타도가 필요함을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각종의 개혁을 한 마디로 표현하면 ‘強權으로부터의 자유’라는 표현밖에 없을 것이다. 강권에 대항하는 근본적인 주의는 ‘平民主義(민주주의)’이다. 종교의 강권, 문학의 강권, 정치의 강권, 사회의 강권, 교육의 강권, 경제의 강권, 사상의 강권, 국제의 강권은 이제 완전히 존재의 여지가 없다. 평민주주의의 외침소리를 드높여 타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²⁰⁾

1919년 7월과 8월에 걸쳐 『湘江評論』에 실린 마오쩌둥의 「민중의 대연합(民衆の大聯合)」은 5·4 운동 기간에 광범위하게 전개되었던 다양한 계층 간의 연합이 운동의 방향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게 한 원동력임을 인식하였음을 나타낸 것이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민중 대연합의 효용성을 강조하였다.

민중의 대연합이 왜 이 정도로 위력이 있는 것일까? 한 나라의 민중은 뭐니 뭐니 해도 한 나라의 귀족, 자본가 및 그 외의 강권자보다도 그 수가 많기 때문이다. 귀족, 자본가 및 그 외의 강권자는 수가 적기 때문에 자신들의 특수한 이익을 지키고 다수자인 평민의 공공이익을 착취하는 수단으로 삼는 것이 첫 번째가 지식이며 두 번째가 금전, 세 번째가 무력이다. …… 우리들이 목소리를 합쳐서 외치면 역사적인 압력을 타파할 수가 있다. 더 한층 성대하게 연합하여 우리들이 납득할 수 없는 일과 맞닥뜨린다면 대오를 편성하여 상대방을 향하여 큰 목소리를 외쳐 보자. 우리들인 이미 실제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다.²¹⁾

또한 사회의 주체가 바로 민중이라는 자각을 갖고 민중의 연합을 추진해야 한다고 부르짖으며 민중 대연합의 당위성을 주장하였다.

자! 이제 우리들은 알게 되었다. 깨닫게 되었다! 천하는 우리들의 천하인 것이다. 국가는 우리들의 국가인 것이다. 사회는 우리들의 사회인 것이다. 우리들이 말하지 않으면 누가 말하겠는가? 우리들이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는가? 일각이라도 우물쭈물 할 수가 없다. 우리들은 민중의 대연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만 한다.²²⁾

이 글에 대해 스튜어트 슈람은 글의 내용이 마치 러시아 인민주의자(Narodniki)의 사상적 성향과 비슷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마오쩌둥이 「민중의 대연합」에서 특히 농민에게 집중하여 그 잠재력을 드러내 보인 것은 아니었지만 전체로서의 중국 민중이 중요한 역사적 실체일 뿐 아니라 강력한 진보적 세력인 것을 파악하고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마오쩌둥은 인민주의자의 성향을 지니고 있었고 그 이후도 그러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이 당시 마오쩌둥의 사상은 신문화 운동 시기 그가 지녔던 전통적인 민족주의로부터 마르크스주의로 변화하는 과정의 과도적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중국 인민이 지닌 혁명적 사명에 대한 이러한 기대와 신념은 그 이후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²³⁾ 모리스

20) 毛澤東, 『毛澤東集』(第1卷), p.54 ; 『청년 모택동』, p.169.

21) 毛澤東, 「民衆の大聯合」, 『毛澤東集』(第1卷), pp.58-60 ; 『청년 모택동』, pp.180-183.

22) 毛澤東, 『毛澤東集』(第1卷), p.66 ; 『청년 모택동』, p.191.

23) Stuart Schram, *Mao Tse-tung*, Penguin Books, 1966 (石川忠雄 등역, 『毛澤東』, 紀伊國屋書店, 19

메이스너 역시 당시 마오쩌둥이 사상과 행동 속에서 인민주의적 경향을 띠고 있었음을 피력하였다. 즉 「민중의 대연합」 속에서 마오쩌둥이 중국 민중을 거대한 혁명잠재력과 내재적 에너지를 보유한 단일의 통합된 정치적 실체로 간주하였으며, 이들의 역량을 이끌어내기 위한 정치적 행동으로서 ‘민중의 대연합’을 주장하였다고 보았던 것이다. “국가는 혼란하여 극점에 달하였고, 인류는 고통스러워 극점에 달하였으며, 사회는 암흑이 되어 극점에 달해”²⁴⁾ 있는 시기에 민중의 연합을 통하여 ‘정치개혁’의 승리를 거둔 프랑스와 러시아의 혁명적 형세처럼 수천 년 동안 억압받았고 정치적으로 무기력하였던 중국의 민중이 장구한 세월을 걸쳐서 축적한 내재적 에너지가 곧 큰 세력으로 폭발하게 될 것이라고 본 마오쩌둥의 관점에 대해, “대중의 자발성과 인민의 내재적 잠재력에 대한 마오쩌둥의 인민주의적 신뢰를 발견할 수 있다.”²⁵⁾는 모리스 메이스너의 평가는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마오쩌둥의 인민주의적 경향은 리다자오의 「土地與農民」 발표 2년 후인 1927년 3월 20일 『嚮導』에 발표된 「湖南農民運動考察報告」²⁶⁾ 속에서 보다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마오쩌둥의 회고에 의하면 1924년 겨울, 병 치료를 위해 후난(湖南)으로 돌아온 그는 이 때 후난에 머물면서 대규모 농민운동의 핵심을 조직하였다. 1925년 20개 이상의 농민조합을 조직한 그는 地主들의 반발과 후난 군벌 趙恒惕의 체포령을 피해 광저우로 피신하였고 여기서 그 전해에 彭湃가 설립한 농민운동강습소의 주임으로 취임하여 후난을 위시로 한 21개 省과 內蒙古의 대표로 파견되어 온 강습생들을 교육하였다.²⁷⁾ 1925년 5·30 사건 이후 상당히 급진적으로 진행된 후난 농민운동을 직접 지도하고 관찰하였던 마오쩌둥은 1927년 1월 4일부터 2월 5일까지 32일 간에 걸쳐 후난성 湘潭, 湘鄉, 衡山, 醴陵, 長沙의 농민들을 상대로 한 조사회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湖南農民運動考察報告」를 작성하였다. 이는 공산당 주도 하의 급진적인 토지정책과 강력한 농민 조직화를 제창한 그의 전략과 노선에 대한 陳獨秀를 중심으로 한 당 지도부의 반발과 비판에 답변하기 위해 작성한 보고서였다. 그가 보기에 농민운동의 역량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고 그것이 혁명 정세에 미칠 영향 또한 엄청하므로, “농민운동을 반대하는 모든 견해들은 신속히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되고 “농민운동에 대한 혁명 당국의 각종 그릇된 조치들을 신속히 고치”²⁸⁾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이었다. 이 보고서에서 마오쩌둥은 먼저 후난 농민운동 전개상황을 두 시기로 나누어 그 발전양상을 살펴본다.

첫 번째 시기는 1926년 1월부터 9월까지로, 농민운동의 조직시기라 할 수 있다. …… 이 시기에 농민협회의 회원 수는 모두 30만~40만 명에 불과하였고, 농민협회가 직접 영도할 수 있는 대중도 100여만 명에 불과하였으며, 농촌에서는 아직 어떠한 투쟁도 일어나지 않았으므로 각 계에서도 농민협회에 대해 아무런 시비도 없었다. 농민협회의 회원들이 길안내꾼, 경찰원, 집꾼 등의 일을 했기 때문에 북벌군의 군관들 중에는 이들을 칭찬하는 자까지 있었다.

68, pp.35-36)

24) 毛澤東, 「民衆的大聯合」, 『毛澤東集』(第1卷), p.57 ; 『청년 모택동』, p.179.

25) 모리스 메이스너 저, 김광린 외 역, 『毛澤東思想과 마르크스주의』, 소나무, 1988, pp.140-141.

26) 毛澤東, 「湖南農民運動考察報告」, 『毛澤東選集』(第1卷), 人民出版社, pp.12-44.

27) 에드거 스노, 앞의 책, pp.202-204.

28) 毛澤東, 「湖南農民運動考察報告」, 『毛澤東選集』(第1卷), p.12.

두 번째 시기는 10월부터 1927년 1월까지로 혁명시기에 해당한다. 농민협회 회원 수는 200만 명으로 격증되었고, 농민협회가 직접 영도할 수 있는 대중은 1000만 명으로 증가되었다. 농민이 농민협회에 가입할 때 흔히 한 집에서 한 사람의 이름만 올리기 때문에, 회원이 200만 명이면 동원할 수 있는 대중은 약 1000만 명이라 볼 수 있다. …… 농민들은 이처럼 광범한 조직을 갖게 되자 즉시 행동을 개시하였으며, 이로부터 4개월간에 걸친 거대한 농촌 대혁명이 일어났던 것이다.²⁹⁾

이 보고서는 마르크스주의자로서의 이론적 장식물을 걷어내고 얼핏 보면 인민주의자의 주장이라고 할 정도로 농민조직의 규모와 역량에 집중하고 있다. 마오쩌둥은 이 글에서 농민조합이 완전한 행동의 자유를 얻어야하고 농촌의 혁명적 운동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대담하고도 열정적인 호소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다음과 같이 농민운동의 역량과 그 영향에 대해 평가하였다.

단시일 내에 수억 명의 농민들이 중국의 중부, 남부, 북부의 각 성에서 일어날 것인데, 그 기세는 그야말로 폭풍우와도 같이 급격하고도 맹렬하여 어떠한 힘으로도 억누르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자기들을 얹어 매놓은 온갖 쇠사슬을 끊어 버리고 해방의 길로 줄달음질 칠 것이다. 제국주의·군벌·담관오리·토호열신 등은 그들에 의하여 모조리 매장되고 말 것이다.³⁰⁾

이 주장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농민이 제국주의와 봉건적 제 세력 즉, 군벌·관료·지주의 타파라는 혁명 과업을 성취할 수 있다는 점과 농촌을 혁명 근거지로 본다는 점, 그리고 농민수의 압도적인 규모 때문에 이 세력은 혁명의 주도세력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처럼 마오쩌둥은 농민들이 스스로의 자발성에 의거하여 혁명과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모든 외부적 침략과 조직상의 제약에 대해 적대적이라고 강조하였는데 이는 1919년 마오쩌둥이 혁명가로서 첫발을 내딛었을 때 「민중의 대연합」을 통해 이미 예견했던 것이 실제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음에 대한 확신을 나타낸 것이었다.³¹⁾ 이제 그는 농민의 힘을 간과해서는 안 되며 더 이상 그들이 수동적으로 이용당하는 존재가 아님을 토로한다.

모든 혁명 당파와 혁명 동지들은 그들이 직접 검증 한 후 취할 것인지 버릴 것인지를 결정할 것이다. 그들 앞에 서서 그들을 영도해 나갈 것인가? 아니면 그들 뒤쫓무늬에 서서 그저 비판만 할 것인가? 그것도 아니면 그들의 정면에 서서 그들을 반대할 것인가? 모든 중국인들은 이제 세 가지 길 중에서 어느 것이라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이제 현재의 시국은 어느 쪽이든 신속하게 선택하기를 강요하고 있다.³²⁾

이는 농민운동의 거대한 물줄기는 이미 건잡을 수 없이 불어나서 곧 세차게 흘러내려가려 하고 있으니 물줄기와 함께 흘러가며 방향을 조정하든지 아니면 옆에서 이를 지켜보며 말로만 떠들든지 아니면 보를 쌓아 이를 막든지 하는 세 가지의 선택만이 있을 뿐이나 그 결과는

29) 毛澤東, 『毛澤東選集』(第1卷), pp.13-14.

30) 毛澤東, 『毛澤東選集』(第1卷), p.13.

31) 모리스 메이스너, 『毛澤東思想과 마르크스주의』, pp.141-142.

32) 毛澤東, 『毛澤東選集』(第1卷), p.13.

명약관화한 것이라 주장하는 내용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더 이상 공산주의자들이 농민을 선택하여 그들을 인도할 수 없으며 그러한 단계는 현 시국에서 볼 때 이미 지나가 버린 것이라고 마오쩌둥이 단정 짓고 있는 부분이다. 제국주의와 봉건주의를 타도하는 농민혁명은 곧 농민들이 주도하여 진행되며 그 과정 속에서 진실로 농민 편에 서는 자만이 그들에 의해 선택받을 수 있는 것이었다. 마오쩌둥이 보기에 공산당과 공산주의자들이 농민의 혁명잠재력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농민들이 공산당과 공산주의자들의 혁명역량을 판단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되었던 것이다. 이는 마오쩌둥이 농민을 혁명의 대중적 기반으로 보았을 뿐만 아니라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론 속에서 공산당의 역할로 간주되었던 혁명적 창조력과 정치적 판단기준의 원천을 농민에게 돌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³³⁾

벤자민 슈워츠는 마오쩌둥의 「湖南農民運動考察報告」가 마르크스-레닌주의자로서의 마오쩌둥 뿐 아니라 러시아의 인민주의자(Narodniki)에 의해서도 쓰였을 법한 글이었다고 지적하였다. 이 보고서의 어느 곳에서도 모든 마르크스-레닌주의의 문헌 속에 나타나고 있는 농민의 독자적 혁명역할에 대한 비난을 찾아볼 수 없었던 것이다.³⁴⁾ 농민의 자발적 혁명 역량 및 민족혁명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다음을 주목할 만하다.

……… 수많은 농민들은 그들의 역사적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쫓겨났다. 농촌의 민주세력은 농촌의 봉건세력을 타파하기 위하여 쫓겨났다. ……… 봉건세력의 타파가 바로 민족혁명의 진정한 목표이다. …… 민족혁명은 농촌에서의 대변혁을 요구한다는 것을 모든 혁명동지들은 알아야 한다. 신해혁명은 이러한 변혁이 없었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다. 지금 이러한 변혁이 생겼다는 것은 혁명을 완성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³⁵⁾

또한 농민운동의 급진성과 과격성에 대한 마오쩌둥의 주장은 다음을 통해 드러난다.

혁명이란 손님을 대접하여 식사하는 것도 아니요, 글을 짓는 것도 아니요, 그림을 그리거나 꽃을 수놓는 것도 아니므로 그처럼 고상하고 점잖게, 온순하고 겸손하게 할 수는 없는 일이다. 혁명이란 폭동이며 한 계급의 편에 서서 다른 계급의 정치권력을 빼앗는 격렬한 행위인 것이다. 즉 농민혁명이란 봉건 지주계급의 정치권력에 대항하는 농민의 혁명이다. …… 농촌에서 혁명의 격류가 일어나야만 수천수만의 대중들을 일으켜 거대한 역량을 형성할 수 있는 것이다. ‘과격하다’는 행동들은 모두 농촌의 격렬한 혁명적 격류가 불러일으킨 농민의 역량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 제2시기(혁명시기)에 소위 ‘과격하다’는 행동들은 모두가 혁명적 의의를 지닌다.³⁶⁾

이 모든 내용은 극단적인 과격성을 띠고 있고 기본적인 혁명정신이 가득 차 있으며 농민 그 자체가 중국혁명의 주력임을 끊임없이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마르크스-레닌주의자에 의해서가 아니라 러시아 인민주의자에 의해서 언급되었다고 보는 편이 나을지도 모를

33) 모리스 메이스너, 『毛澤東思想과 마르크스주의』, p.141.

34) Benjamin A. Schwartz, *Chinese Communism and the Rise of Mao*, Cambridge, Harvard press, 1952, p.76 ; 벤자민 슈워츠 저, 권영빈 역, 『중국공산주의운동사』, 형성사, 1983, pp.100-105.

35) 毛澤東, 『毛澤東選集』(第1卷), pp.15-16.

36) 毛澤東, 『毛澤東選集』(第1卷), p.17.

정도로 인민주의적 성향을 띠고 있다.³⁷⁾

결국 마오쩌둥은 「湖南農民運動考察報告」을 통해 중국공산당을 지탱할 농민혁명의 전략을 마련하였으며 여기에서 명백하게 드러난 인민주의적 경향은 이후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영향 하에서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않았다. 그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농촌인구의 70% 가량을 이루고 있는 이 엄청난 빈농 대중은 농민협회의 근간이고, 봉건세력을 타도하는 선봉이며, 수년 동안 이루지 못하였던 위대한 혁명사업을 성취한 으뜸가는 공로자들인 것이다. …… 빈농들은 가장 혁명적이므로 농민협회의 영도권을 장악하였다. …… 빈농의 이 영도권은 절대 필요한 것이다. 빈농이 없이는 혁명이 있을 수 없다. 그들을 부인하는 것은 혁명을 부인하는 것이다. 그들을 공격하는 것은 곧 혁명을 공격하는 것이다.³⁸⁾

민중에 대한 마오쩌둥의 신뢰는 본질적으로 중국 인민의 대다수를 점하고 있으며 중국 공산혁명 과정에서 주요한 역할을 수행할 농민 대중, 특히 빈농에 대한 신뢰를 뜻하는 것이었다. 그는 봉건세력을 타도하기 위해 농민이 중국혁명의 주된 세력이 된다고 보았는데 이와 같은 그의 통찰은 여러 사례로 입증되었으며, 농민과 관련된 전략을 성공시킴으로써 중국공산당을 강화하여 그것을 최후의 승리로 이끌었다.³⁹⁾ 중국 혁명을 성공으로 이끌 주역으로서의 농민에 대한 자각은 곧 농민을 중심으로 하는 민중에 대한 전략적 접근으로 나아갈 수 있었고 이러한 접근은 농민의 사상 개조와 더불어 인민 속으로 파고들어 민중이 함께 향유할 문화를 제시하고 이를 통해 민중에게 일정한 정치적 방향성을 제시할 새로운 문화의 창도를 이끌어 내는 정책으로 이어져야 했다. 즉 마오쩌둥에게 있어서 인민을 중심으로 하여 그들을 위해 일하고 그들에 의해 향유될 문화, 즉 민중문화의 창도가 곧 민족혁명 및 사회혁명을 이끌 무기로서 제시되어야 했던 것이다.

3. 延安時期 毛澤東의 民衆文化觀과 文化政策

마오쩌둥의 사상과 혁명 전략에서 보이는 인민주의적 경향이 실제로 러시아 인민주의 사상에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결과인지 아니면 자생적으로 발전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가 베이징대학의 도서관에서 일하면서 당시 도서관 주임이었던 리다자오의 학문적 지도아래 마르크스주의를 접했던 것은 사실이나 그의 베이징 체류기간이 8개월에 불과했던 점을 감안해 본다면 사상적 감화 또는 사상적 개조 수준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리다자오가 인민주의적 관점을 분명히 드러내었던 「青年與農村」(1919.2)과 「‘少年中國’의‘少年運動」(1919.9)이 쓰였던 것과 거의 같은 시기에 마오쩌둥 역시 ‘민중’의 힘에 대한 자각을 보여준 「湘江評論創刊宣言」(1919.7), 「民衆的大聯合」(1919.7-8)을 발표하였다는 것은 양자 간의 일정한 관련성을 추론해 볼 하나의 근거가 될 수도 있다. 즉 리다자오

37) 벤자민 I. 슈워츠 저, 권영빈 역, 『중국공산주의운동사』, 형성사, 1983, pp.100-103.

38) 毛澤東, 『毛澤東選集』(第1卷), p.21.

39) 체스터 탄, 「모택동사상의 전개」, 민두기 편, 『중국현대사의 구조』, 청람, pp.257-259.

의 인민주의적 민중관이 하나의 사상적 씨앗이 되어 마오쩌둥의 머릿속에 어느 순간인가 심어진 이후에 자신도 모르게 조금씩 성장해 나갔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어서 마오쩌둥이 ‘농민’의 자발적 혁명역량을 자각하게 되었음을 보여준 1927년의 「湖南農民運動考察報告」는 좀 더 분명하게 그의 인민주의적 사상 경향을 드러내어 준다. 그리고 이러한 마오쩌둥의 ‘민중’에 대한 자각은 옌안 시기 옌안 코뮌을 실험적으로 이끌면서 내세웠던 많은 혁명전술과 지도방침, 중국 공산주의 혁명운동의 역사적 시대구분, 문화운동과 문화정책 속에서 중심적으로 표현되었다. 이제 마오쩌둥 혁명전략의 핵심을 이루는 대중노선은 곧 대중을 사상적으로 지도하는 데서 더 나아가 문화운동과 문화정책 속에서 실질적으로 문화 사상의 주도적 지위를 차지하는 민중을 위한 문화를 창도하는 데까지 발전할 수 있었다.

일찍이 마오쩌둥은 「湖南農民運動考察報告」의 내용 중에서 농민운동을 통해 지주를 타도하고 농촌권력을 장악한 농민들이 전개한 문화운동을 농민협회의 지도하에 농민들이 전개한 14가지 대사업 중의 하나로 지적한 바 있었다. 그가 1927년에 농민을 혁명의 주역으로 상정하면서 그들이 이끌어 낸 문화운동에 대해 서술한 내용은 앞으로 그가 농민을 중심으로 전개할 문화정책의 큰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라 할 수 있었다.

중국에는 90%나 되는 인민이 아직 문화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 중의 절대 다수가 농민이다. 농촌에서 지주의 세력이 타도되자 농민의 문화운동이 시작되었다. 지금까지 학교를 몹시 중요하던 농민들이 이제는 야학 설립에 노력하고 있다. ‘신식학교’는 지금까지 농민들의 눈에 거슬리는 대상이었다. …… 농촌 소학교의 교재는 전부 도시에 대한 것만을 다루고 있었지, 농촌에는 맞지 않는 것이었다. 소학교 선생들의 농민을 대하는 태도도 매우 나빴다. 그들은 농민을 돕는 편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농민들이 싫어하는 대상이었다. …… 지금에 와서는 농민들이 야학을 대대적으로 설립하고 있으며, 그 이름을 농민학교라 부르고 있다. 이미 설립된 곳도 있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곳도 있는데, 평균 매 향마다 하나씩은 된다. …… 농민운동이 발전되면서 농민들의 문화 수준은 급속도로 향상되고 있다. 머지않은 장래에 수만 개의 학교가 전 성의 농촌들에 설립될 것이다. 이것은 지식계층과 소위 ‘교육가’라는 자들이 ‘교육보급’을 외치고 다녀도 결국 헛소리에 지나지 않는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⁴⁰⁾

이 서술에서 두 가지 중요한 부분을 지적할 수 있는데 하나는 문화의 내용이고 다른 하나는 그 문화를 주도할 주체에 관한 것이다. 마오쩌둥은 그가 몸소 조사하고 체험한 사실을 바탕으로 하여 농민이 수용하고 향유할 문화가 도시에 대한 것이 아닌 농촌에 관한 것을 다루고 있어야 한다는 것과 그 문화의 보급을 주도할 세력이 지식계층이나 ‘교육가’가 아닌 농민 본인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이후 그가 하나의 이론과 전략으로 내세울 새로운 문화의 정의와 범위, 그리고 성격을 규정짓는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그가 수립할 신문화의 대상과 내용을 농촌과 농민을 소재로 한, 농민을 위해 사용될, 농민 본인이 향유할 문화로 제시하였으니 이는 다른 말로 민중문화라고 할 수 있었다.

井岡山 시기 이후 마오쩌둥이 공산주의 공동체 실험을 통해 공산주의적 이상세계의 꿈을 키우고 자신의 혁명 전략을 적용시키며 새로운 문화를 창도해 내고자 힘썼던 시기가 바로 연

40) 毛澤東, 『毛澤東選集』(第1卷), pp.39-40.

안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옌안 시기 마오쩌둥의 민중문화관을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바로 「新民主主義論」이다. 마오쩌둥은 抗日民族統一戰線, 人民共和國, 人民民主主義, 民主共和國에 관해서 1935년 말부터 단편적으로 발표한 글들을 정리해서 일관된 이론체계를 세우기 위하여 1940년 1월 「新民主主義論」을 발표하였다. 여기서 마오쩌둥은 당시 중국 공산주의 혁명운동의 발전단계와 더불어 앞으로의 혁명 전략에 대해 밝히면서 신민주주의 시기의 혁명을 통해 건립하고자 하는 신문화의 내용과 형식에 대해 선언적으로 제시하였다.

먼저 마오쩌둥은 중국 혁명의 목적이 중화민족의 새로운 사회와 국가를 건설하는 데 있으며, 이는 새로운 정치와 새로운 경제뿐 아니라 새로운 문화 위에 세워져야 한다고 전제하였다. 그리고 새로운 중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낡은 중국을 청소하는 작업부터 착수해야 하는데 중국은 3천년 이상 된 봉건사회로 그 문화는 봉건문화였으며 다시 근대 이래 반식민지·반봉건 성격을 띠면서 문화 또한 그러한 성질을 가지게 되었으니 중국 공산당이 영도하는 중국 혁명을 통해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우리 공산당인은 여러 해 동안 중국의 정치혁명과 경제혁명을 위해 투쟁해 왔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문화혁명을 위해서도 투쟁해 왔다. …… 우리는 정치적으로 억압을 당하며 경제적으로 착취를 당하고 있는 중국을 정치적으로 자유로움과 경제적으로 번영한 중국으로 전환시켜야 할 뿐만 아니라 낡은 문화의 지배로 인하여 우매하고 낙후된 중국을 신문화에 의한 지배를 통하여 문명화되고 선진적인 중국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 중화민족의 신문화를 건설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문화영역에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목적인 것이다.⁴¹⁾

그가 건설하고자 한 신민주주의 문화 즉 신문화의 핵심은 바로 무산계급 지도자가 인민대중을 위해 반제·반봉건적인 문화를 제창하고, 문화운동을 통해 지배계층과 지식인들의 문화가 아닌 인민대중이 쉽게 향유하는 민중문화를 창도하고 전개하는 것이었으니 여기서 보여준 신문화 건설 정책은 이후 중국 공산당의 문화정책의 기본적 이론체계의 토대라 할 수 있었다. 그는 구문화와 신문화의 차이를 설명하면서 신문화의 건설이야말로 낡은 것과의 투쟁을 통한 혁명 과정이라는 것을 밝히며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일정한 문화는 관념형태에 있어서 일정한 사회의 정치와 경제의 반영이다. 중국에는 제국주의 문화가 있다. 이것은 제국주의가 정치경제적으로 중국을 통치하고 있거나 절반 통치하고 있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 부분의 문화는 제국주의가 중국에서 직접 경영하는 문화기관들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얼굴이 두꺼워 수치심을 모르는 일부 중국사람들에 의해서도 창도되고 있다. 노예화사상을 내포하고 있는 문화는 모두 다 이 부류에 속한다. 중국에는 또 반봉건문화가 있다. 이것은 반봉건적 정치 및 반봉건적 경제를 반영한 것이다. 공자를 숭상하고 경서를 읽는 것을 주장하며 낡은 예교와 낡은 사상을 창도하며 새로운 문화와 새로운 사상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이러한 문화의 대표자들이다. …… 신문화는 관념형태에 있어서 신정치 및 신경제를 반영한 것이며 신정치, 신경제에 따라야 하는 것이다. …… 새로운 정치 역량, 새로운 경제 역량, 새로운 문화 역량은 다 중국의 혁명 역량이며, 그것들은 낡은 정치, 낡은 경제, 낡은 문화를 반대한다. …… 중국사회에 있어서 새 것과 낡은 것들 간의 투쟁은 곧 인민대중(여러 혁명 계

41) 毛澤東, 「新民主主義論」, 『毛澤東選集』(第2卷), p.624.

급)의 새로운 세력과 제국주의 봉건계급의 낡은 세력과의 투쟁이다. 이러한 새 것과 낡은 것과의 투쟁이 곧 혁명과 반혁명과의 투쟁이다.⁴²⁾

마오쩌둥은 신민주주의 시기 문화 혁명의 내용과 의의에 대해 서술하며 앞으로의 문화 정책은 바로 이러한 신문화 운동의 기본방향에 따라야 한다고 보았다. 지금까지 중국을 지배해 온 낡은 문화는 모두 제국주의와 봉건계급에 봉사하는 제국주의문화 및 봉건주의문화였다. 전자는 민족적 자주성이 없는 노예사상으로 나타나고, 후자는 공자를 숭상하고 사서오경을 암송하고 낡은 윤리, 낡은 사상을 정당화하는 데 나타났다. 이 낡은 문화에 대항해 온 신문화 운동은 5·4 운동 이후에 비로소 본격적으로 대두하였으니 신민주주의 문화는 바로 반제·반봉건적 문화이며 이는 인민대중을 반제·반봉건 투쟁으로 이끄는 혁명적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5.4’ 이후 중국에는 완전히 새로운 문화 신예부대가 나타났다. 그것은 즉 중국 공산당인이 영도하는 공산주의적 문화사상, 즉 공산주의적 세계관 및 사회혁명론이다. …… 중국의 정치신예부대, 즉 중국무산계급과 중국공산당이 중국의 정치무대에 진출하게 됨으로써, 이 문화신예부대는 새로운 옷차림에 새로운 무기를 들고 모든 가능한 동맹군과 연합하여 자기의 세력을 확대함으로써 제국주의문화와 봉건문화에 대하여 용감한 공격을 전개하였던 것이다. 이 신예부대는 사회과학영역과 문학예술영역에 있어서, 철학·경제학·정치학·군사학·역사학·문학·예술 등의 모든 방면에서 극히 큰 발전을 가져왔다. 지난 20년 동안 이 새 문화부대의 창끝이 향하는 곳에서는 사사에서부터 형식에 이르기까지 모든 면에서 극히 큰 혁명이 일어났다. …… ‘5.4’ 이전에 있어서 중국의 신문화는 구민주주의적 성격을 띤 문화이며 세계자산계급의 자본주의적 문화혁명의 일부분이었다. ‘5.4’ 이후에 있어서의 중국의 신문화는 신민주주의적 성격을 띤 문화이며 세계무산계급의 사회주의문화혁명의 일부분이다. ‘5.4’ 이전에 있어서 중국의 신문화운동과 중국의 문화혁명은 자산계급이 영도한 것으로 그들은 아직 영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5.4’ 이후 이 계급의 문화사상은 그들의 정치상의 그것보다도 더 낙후하여 영도적 역할을 전혀 할 수 없게 되었다. …… 신민주주의 문화라는 것은 인민대중의 반제, 반봉건적 문화이며 오늘날에 있어서는 항일통일전선의 문화이다. 이러한 문화는 오직 무산계급의 문화사상, 즉 공산주의사상이 영도할 수 있을 뿐이고, 다른 어떠한 계급의 문화사상도 그것을 영도할 수 없다. 신민주주의 문화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무산계급이 영도하는 인민대중의 반제, 반봉건적 문화이다.⁴³⁾

마오쩌둥이 정립한 민중문화관 즉 신민주주의 문화의 정의, 대상, 역할, 의의에 대한 내용이 좀 더 발전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책 방향으로 표출된 것이 바로 그가 1942년 옌안의 문화 종사자들과의 좌담회에서 한 연설인 「옌안 문예좌담회에서의 강화(在延安文藝座談會上的講話)」였다.

당시 옌안은 좌익지식인에게 일종의 혁명 성지였는데, 1936년 丁玲이 南京을 탈출하여 섬 북소비에트로 들어온 이래로 중일전쟁 시기 전국 각지의 좌익 혹은 진보적 문화계 인사와 지식인들이 옌안으로 유입되었다. 이들 지식인이 옌안으로 들어오게 된 원인 중의 하나는 공산당이 지식인에 대해 적극적인 수용정책을 폈기 때문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마오쩌둥은 1939

42) 毛澤東, 『毛澤東選集』(第2卷), pp.655-656.

43) 毛澤東, 『毛澤東選集』(第2卷), pp.657-659.

년 12월 1일 「지식인을 대량으로 받아들이다(大量吸收知識分子)」라는 글을 발표하며 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지난 3년 동안 우리 당과 우리 군대는 지식인을 받아들이는 면에서 상당한 노력을 하여 수많은 혁명적 지식인을 당과 군대, 정부사업에 참여시켜 문화운동과 민중운동을 하게 하였으며, 통일전선을 발전시켰다. 이것은 큰 성과였다. 그러나 군대 내의 많은 간부들은 아직도 지식인의 중요성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고 있으며, 아직도 지식인을 두려워하며, 심지어는 지식인을 배척하는 심리가 존재하고 있다. ……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은 …… 지주계급·자산계급을 위하여 복무하는 지식인과 노농계급을 위하여 복무하는 지식인이 다르다는 것을 알지 못하며 …… 우리 당과 군대에는 이미 중견핵심이 형성되어 지식인을 장악할 능력이 있다는 이 유리한 조건을 아지 못하기 때문이다.⁴⁴⁾

여기서 마오쩌둥은 “노농계급을 위하여 복무하는 지식인”이 존재하며 이들을 이용해야 한다는 사실과 함께 당과 군대가 “지식인을 장악할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민중문화를 위해 복무할 지식인과 함께 그들이 만들어낼 민중문화의 방향성을 이미 공산당이 장악하고 있음을 설파하고 있다.

지식인의 연안으로의 대거 유입 및 지식인 수용에 관한 공산당 중앙의 적극적인 정책에 힘입어, 연안에서의 지식인 집단은 공산당의 지도 아래 문예 및 문화 관련 단체를 조직하였는데 1936년 11월 22일 保安에서 성립된 中國文藝協會와 1937년 11월 14일 연안에서 창립된 陝甘寧特區文化界救亡協會(이후 陝甘寧邊區文化界救亡協會로 개칭), 1938년 9월 11일 연안에서 결성된 陝甘寧邊區文藝界抗敵聯合會이 그 대표적 단체였다. 연안 시기에 들어선 후 연안 전기에 걸쳐 진행되었던 문예운동에 대해 공산당의 관심과 지도가 부족하였던 점에 대해 마오쩌둥은 中國文藝協會의 창립대회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지난날 우리에게는 문예를 애호하는 수많은 동지가 있었지만, 우리는 노농대중의 문예창작을 진행하도록 조직하지도 않았고 전문적 연구를 기획하지도 않았다. ……이제 우리는 武 뿐만 아니라 文도 필요하다. 우리는 문무를 겸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⁴⁵⁾

이는 연안을 중심으로 하는 陝甘寧邊區에서 중국공산당이 이전보다 훨씬 직접적인 방식으로 문화운동을 조직하고 통제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공산당원들을 탄압하고 그들의 활동을 불법으로 규정해 엄하게 금지하였던 上海와는 달리 연안의 변구 정부는 그들의 정치 이념에 들어맞는 문화운동과 문화정책을 펼 수 있는 공간이 되었던 것이다.⁴⁶⁾

陝甘寧邊區에서는 문예대중화론과 관련하여 오랫동안 지식인 간에 토론과 논쟁이 진행되어 왔다. 「연안 문예좌담회에서의 강화」(이후 「강화」로 약함)는 그러한 문화운동 논쟁의 연장선 위에서 문화의 대상과 내용을 정치적 혁명 전략과 관련지어 규정한 연설이라 할 수 있었

44) 毛澤東, 『毛澤東選集』(第2卷), pp.581-582.

45) 延安文藝叢書編委會 편, 『延安文藝叢書(文藝史料卷)』, 湖南文藝出版社, 1987, p.312.

46) 김은희, 「연안의 문화운동론과 지식인 연구 - 延安 前期의 文藝界를 중심으로」, 『중국문학』, 제94집, 2018, pp.125-135.

다. 여기서 마오쩌둥은 “문예는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지어져야 하는가?”라는 명제에 있어서 사회주의 현실주의라는 엄격한 문예원칙에 따를 것을 강제적으로 요구하였다. 이 「강화」는 문예의 주체, 문예의 대상, 문예계 통일전선, 문예비평의 기준, 학습 내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리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풍운동을 통하여 중국공산당 혁명노선을 전제로 한 중국 특유의 사회주의 현실주의라는 문학 활동의 틀을 형성하였고 문학과 정치를 결합하여 일반적인 문예규범을 정립하였다.⁴⁷⁾

마오쩌둥은 「강화」에서 “문예는 인민을 위해 복무하고, 사회주의를 위해 복무한다.(文藝爲人民服務, 爲社會主義服務)”는 “二爲” 방침을 전면에 내세웠다. 일찍이 1934년 1월 마오쩌둥은 이미 “二爲”의 기본방향을 형성하였다. 그는 광대한 중국민중이 모두 향유하는 소비에트 문화를 창조하여야 하며, 이러한 새로운 工農의 소비에트문화 건설의 목표는 반드시 “혁명전쟁과 계급투쟁을 위해 복무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던 것이다.⁴⁸⁾ 비록 중화인민공화국 건립 전 마오쩌둥은 “二爲” 문제를 하나로 연결하여 표현하지 않았고 “사회주의 국가를 위해 복무한다.”는 표현방식을 사용할 수도 없었지만 그는 문화란 마땅히 절대 다수의 인민을 위해 복무해야 하며 인민의 해방투쟁을 위해 복무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즉 그는 문화투쟁과 혁명 투쟁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중국 인민해방투쟁 중에 있는데 거기에는 문무 양 전선 즉 문화전선과 군사전선이 있습니다. 적을 패퇴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무장한 군대에 의존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군대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편을 단결시키고 적을 물리치는 데 필요불가결한 일단의 군대, 즉 문화적 군대를 가져야만 합니다.⁴⁹⁾

라고 주장하였고 또 문화 대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첫 번째 문제는 우리의 문화예술이 누구를 위하는 것이냐입니다. 이 문제는 본래 마르크스주의자 특히 레닌에 의해서 일찍이 해결되었습니다. 1905년에 이미 레닌은 우리의 문예는 “수천만 노동인민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던 것입니다.⁵⁰⁾

동시에 신민주주의와 사회주의 혁명의 관계에 대한 마오쩌둥의 이론에 따르면 혁명문화는 인민대중이 신민주주의 혁명을 완성하기 위해서 또한 신민주주의 국가를 건립하기 위해 복무해야 하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 볼 때 마오쩌둥은 실제로 “문예는 인민을 위해 복무해야 하고, 사회주의를 위해 복무해야 한다.”는 것을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실체로 파악했다.⁵¹⁾

또한 마오쩌둥은 ‘인민대중이란 무엇인가’의 정의를 내리고 있다.

인민대중이란 무엇인가? 가장 광대한 인민은 전체 인구의 100분의 90 이상을 점하고 있는 노

47) 이태형, 「중국 문화정책의 통시적 고찰」, 『문화교류연구』, 제5집, 2016.12, p.86.

48) 毛澤東, 「中華蘇維埃共和國中央執行委員會與人民委員會對第二次全國蘇維埃代表大會的報告」, 『江西社會科學』, 1981.12.

49) 毛澤東, 「在延安文藝座談會上的講話」, 『毛澤東選集』(第3卷), 人民出版社, 1971, p.804.

50) 毛澤東, 위의 글, 『毛澤東選集』(第3卷), p.811.

51) 何歡, 「毛澤東文化政策思想研究」, 河南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12.5, pp.7-8.

동자 농민 병사와 도시의 소자산계급이다. 따라서 우리들의 문예는 첫째가 노동자를 위한 것이어야 하니 이것은 혁명을 영도하는 계급이기 때문이다. 둘째는 농민을 위한 것이어야 하니 그들은 혁명에서 가장 광대하고 가장 굳건한 동맹군이기 때문이다. 셋째는 무장한 노동자 농민 즉 팔로군, 신사군과 기타 인민무장군을 위한 것이어야 하니 이것은 혁명전쟁의 주력이기 때문이다. 넷째는 도시소자산계급 노동군중과 지식분자를 위한 것이어야 하니 그들도 혁명의 동맹자이며 그들은 장기간 우리와 합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네 종류의 사람들은 바로 중화민족의 최대 부분이고 가장 광대한 인민대중이다.⁵²⁾

그런데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5월 2일의 문제의 제기에서는 사람을 적과 동맹자, 자기편의 세 종류로 분류하고 문예공작의 대상으로 자기편인 노동자 농민 병사와 각종 간부로 제한시켰으나 이곳에서는 ‘도시 소자산계급’도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고 ‘도시 소자산계급의 지식분자’를 ‘자기편’으로 보고 있지 않다. 그것은 이들 도시 소자산 지식분자들이 자기편인 노동자 농민 병사들과 화합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며 도시소자산계급지식분자인 문예가들을 질책하는 것이 이 ‘문예좌담회’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곳에 비록 ‘도시 소자산계급’이 포함되어 있으나 그것은 형식상일 뿐이고 문예의 대상은 바로 ‘노동자, 농민, 병사’라 할 수 있었다.⁵³⁾

그리고 그는 문화예술계에 종사하고 있는 소자산계급 지식인들로 하여금 인민 속으로 들어가 그들의 생활과 문화를 배우고 그들이 제공하는 문예의 원천을 통해 인민이 향유할 수 있는 문화를 창조해 내기 위해 최종적으로는 노동자화·농민화·병사화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는 대중노선을 통해 중국 공산혁명을 완수하고자 한 마오쩌둥의 인민주의적 사상과 방침이 문화 정책을 통해 구체화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즉 그는 옌안의 문화예술가들에게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중국의 혁명적 문학과 예술가, 발전성이 있는 문학과 예술가는 반드시 군중 속에 들어가야 하고, 반드시 장기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전심전력으로 노동자·농민·병사의 군중 속에 들어가야 하고, 불같이 뜨거운 투쟁 속으로 들어가야 하며, 유일하고 가장 광대하며 가장 풍부한 원천 속으로 들어가 모든 사람, 모든 계급, 모든 군중, 모든 생동하는 생활 형식과 투쟁 형식, 모든 문학과 예술의 원시 재료를 관찰하고 체험하고 연구하고 분석한 후에야 창작과정으로 진입할 수 있는 것이다.⁵⁴⁾

마오쩌둥 민중문화 사상의 핵심을 요약해 본다면 ‘인민중심의 문화’와 ‘문화의 대중화’라고 할 수 있다. 마오쩌둥은 문화가 어떻게 인민 군중을 위해 복무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문화정책의 중심이라고 제시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인식하였다.

모든 종류의 문학예술의 원천은 대체 어디에 있을까? 관념형태로서의 문예작품은 모두 일정한 사회생활이 인류의 두뇌 속에서 반영된 산물이다. 혁명적 문학예술은 인민의 생활이 혁명적 작가의 두뇌 속에서 반영된 산물이다.⁵⁵⁾

52) 毛澤東, 「在延安文藝座談會上的講話」, 『毛澤東選集』(第3卷), p.812.

53) 김시준, 「‘延安文藝座談會에서의講話’에 대하여」, 『中語中文學』, 제10집, 1988.10, pp.207-208.

54) 毛澤東, 「在延安文藝座談會上的講話」, 『毛澤東選集』(第3卷), pp.817-818.

그가 보기에 문학예술의 원료는 인민의 생활 중에 있는 것이고 이러한 다듬어지지 않은 자연형태의 재료가 가장 생동감 넘치는 것이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인민의 생활은 모든 문학예술에 있어서 결코 마르지 않는 원천과 같은 것이었다. ‘인민중심의 문화’에 기초하여 마오쩌둥은 문화의 대중화를 주장하였다. 먼저 그는 ‘대중화’를 위해 인민에 대해 잘 알아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문학예술활동의 대상이 노동자·농민·병사 및 그 간부인 이상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잘 알아야 한다는 문제가 나타난다. …… 우리 문학예술 공작자들은 자신의 문학예술활동을 해야 하지만, 그들의 첫 번째 활동과제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잘 아는 것이다.⁵⁵⁾

문화의 대상인 인민 군중을 잘 안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그들의 말을 사용하고 그들의 감정을 공유하는 것을 의미하였다.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즉 인민대중의 풍부하고 생동감 넘치는 말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다. 많은 문학예술 공작자가 대중과 유리되어 있고 생활이 공허하기 때문에 자연히 인민의 말에 익숙하지 않다. 따라서 그들의 작품은 말이 진부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종종 억지로 만들어 내어 인민의 말과 대립되는 알 수 없는 어구들이 섞여 있다. …… 대중화란 무엇인가? 그것은 즉 우리 문학예술 공작자들의 사상·감정이 노동자·농민·병사 대중의 사상·감정과 하나로 융합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로 융합되려면 대중의 말을 진지하게 배워야 한다.⁵⁷⁾

여기서 마오쩌둥이 생각하는 민중문화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다. 즉 민중문화란 인민의 언어와 감정에 부합되는 문화인 것이다. 문학이든, 예술이든 간에 민중의 눈높이에 맞추어 그들의 언어와 감정을 충실히 반영하는 것이 문화의 대중화이며 대중화된 문화가 바로 민중문화라 할 수 있었다. 문화 대중화의 전제는 문화 창작자와 민중의 감정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상과 감정이 한 데 아우러져야만 진정 인민 군중이 생각하는 바를 생각할 수 있으며 감정적으로 대중에 의해 받아들여지고 환영받는 우수한 작품을 창작해 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어떻게 문예의 대중화를 실현할 것인가” 하는 것 또한 마오쩌둥이 해결하고자 노력한 문제였는데 그는 군중의 언어를 배워서 군중의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즐겨 보고 들을 수 있는 형식을 통해 문화의 대중화를 실현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이처럼 마오쩌둥은 ‘문화 대중화’의 내용은 인민을 위한다는 것과 인민에 의해 향유된다는 것에 있다고 보았다. 그는 더 나아가 그 둘이 “현실 상황 하에서 통일되기 어렵지만 어떠한 방식과 정도에 있어서 통일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⁵⁸⁾이라고 생각하였다.

이와 같이 마오쩌둥이 주장한 문화 대중화의 대상은 구체적인 것이었고 인민 군중의 개념

55) 毛澤東, 『毛澤東選集』(第3卷), p.817.

56) 毛澤東, 『毛澤東選集』(第3卷), p.807.

57) 毛澤東, 『毛澤東選集』(第3卷), pp.807-808.

58) 胡風, 『胡風評論集』, 人民文學出版社, 1984, pp.209-210.

이 뜻하는바 역시 매우 명확한 것이었다. 마오쩌둥은 중국의 혁명이 실질적으로 농민 혁명이며, 신민주주의 정치는 실제 농민에게 권력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민중문화는 곧 농민 문화를 제창하는 것이었으므로 신삼민주의는 바로 농민혁명주의였다. 즉 민중문화를 통해 민중을 압도적으로 끌어들이 대동단결시키는 통일전선을 형성하여 중국혁명을 완성하고자 했던 것이다.⁵⁹⁾ 마오쩌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혁명적 삼민주의, 신삼민주의 또는 참된 삼민주의는 반드시 농공정책의 삼민주의여야 한다. 농공정책을 실시하지 않고 농공을 진심으로 부조하지 않으며 ‘총리의 유촉’에 있는 ‘민중을 불러 일으키는 것’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혁명을 실패시키려는 것이며 스스로 실패하려는 것이다. 스탈린은 “민족문제는 본질적으로 농민문제이다.”라고 말하였다. 이 말은 즉 중국의 혁명은 본질적으로 농민혁명이며 지금의 항일은 농민의 항일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신민주주의적 정치란 본질적으로 권리를 농민들에게 부여하는 것이다. 신삼민주의, 참된 삼민주의는 본질적으로 농민혁명주의이다. 대중적 문화란 본질적으로 농민의 문화를 제고시키는 것이다. 항일전쟁은 본질적으로 농민전쟁이다. …… 항일에 있어서의 모든 것, 생활에 있어서의 모든 것은 본질적으로 다 농민이 공급하고 있다. …… 중국인구의 80%가 농민이라는 것은 소학생도 알고 있는 상식이다. 그러므로 농민문제는 중국혁명의 기본문제가 되었으며, 농민의 역량은 중국혁명의 주요역량이다.⁶⁰⁾

여기에서도 볼 수 있듯이 「강화」에서 제시하고 있는 문화의 주요 복무 대상인 인민 대중, 즉 농민은 마오쩌둥의 혁명 전략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었다. 신민주주의 혁명의 주체는 농민으로 신민주주의 문화의 중심은 농민에게 있었으며 신민주주의 혁명을 통해 얻게 될 과실 또한 농민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마오쩌둥은 깊이 인식하였던 것이다.⁶¹⁾ 마오쩌둥이 주장한 문예의 대중화는 문화전선에 있어서 인민 대중이 문화적 주체가 되게 하는 인민 문화혁명의 한 표현이었다. 이에 대해 沈文慧는 “농민에게 문화 권리를 부여한 것은 마오쩌둥 문예사상의 논리 기초이자 기본 요구이다.”⁶²⁾라고 지적하였다.

이처럼 연안 시기 마오쩌둥이 정립하고 발전한 민중문화관은 매우 구체적이고 명확한 것으로 그가 의미한 인민 또는 군중은 곧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농민과 노동자 및 병사를 의미하는 것이었고 문화 정책의 내용은 곧 농민과 노동자 및 병사를 위한 문화의 건설, 즉 문화 대중화였다. 마오쩌둥은 문화의 대상을 농민을 중심으로 한 인민 대중으로 규정하고, 신민주주의 혁명의 주체를 농민으로 하여 문화의 중심을 농민에게 돌림으로써 농민을 통한 중국혁명이라는 다소 이단적이지만 매우 전략적인 혁명방침을 수립할 수 있었다. 즉 마오쩌둥 민중문화 사상과 문화 정책의 핵심에는 바로 광대한 농민 대중을 일깨우고 동원하여 새로운 정치·경제·문화 속에서 주도적 지위를 갖도록 하려는 실천적 의미의 인민주의 사상이 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59) 우노 시게야키 저, 김정화 역, 『중국공산당사』, 일월서각, 1984, p.135.

60) 毛澤東, 「新民主主義論」, 『毛澤東選集』(第2卷), pp.652-653.

61) 韓淸玉·李承熙, 「毛澤東文藝思想的當代認識」, 『국제지역학논총』, 제5집, 2012.6, pp.113-116.

62) 沈文慧, 「賦與農民文化權利: 毛澤東文藝思想的基本訴求」, 『毛澤東思想研究』, 2010.5, p.27.

4. 맺음말

1917년 러시아 혁명을 통해 중국에 전파된 러시아 인민주의 사상은 중국사회의 실제상황과 결합되어 독특한 특색을 지닌 관점을 형성시켰다. 그리고 이것은 중국에서 농민의 혁명적 역량을 인식한 리다자오의 인민주의적 민중관에서 점차 드러났다. 마오쩌둥은 1918년 베이징으로 상경하여 리다자오 밑에서 베이징대 안에 개설되었던 ‘마르크스주의 연구회’에 참가하여 마르크스주의 학설을 연구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리다자오 밑에서 급속하게 마르크스주의의 방향으로 성장하였고 리다자오가 수용한 러시아 인민주의 사상의 영향을 일정 정도 받게 되었다. 이는 리다자오가 인민주의적 관점을 분명히 드러내었던 글들이 쓰였던 것과 거의 같은 시기인 1919년에 마오쩌둥 역시 ‘민중’의 힘에 대한 자각을 보여준 「湘江評論創刊宣言」, 「民衆の大聯合」을 발표하였다는 것을 통해서도 양자 간의 일정한 관련성을 추론해 볼 수 있다.

사실 리다자오로 하여금 마르크스주의를 중국적 상황에 적응시키도록 했던 인민주의적 형태의 신념은 마오쩌둥의 행동과 사상 속에서는 다소 불분명한 형태로 출현하였다. 그러나 마오쩌둥이 지적으로 성숙해지면서 그의 사상 및 행동 속에 나타나는 인민주의적 경향은 분명한 형태를 취하게 되었으며, 단순한 농촌 중심 혁명운동의 결과적 산물만은 아니었다. 바로 「民衆の大聯合」 속에서 마오쩌둥은 중국인민을 거대한 혁명잠재력을 보유한 단일의 통합된 정치적 실체로 간주하였던 것이다. 그는 중국인민이 거대한 내재적 에너지를 보유하고 있다고 공언하였고 중요한 정치적 행동으로서 ‘민중의 대연합’을 주장하였다. 또한 1927년에 발표한 「湖南農民運動考察報告」에서는 농민을 자발적 혁명역량을 지닌 혁명주체로서 상정하였다. 마오쩌둥이 보여준 이러한 인민주의적 경향은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영향 하에서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마오쩌둥 문화사상의 가장 큰 특징은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대중성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마오쩌둥은 당시 중국 사회를 잠식하고 있던 구문화, 즉 구체제의 상류층 또는 제국주의 지배세력 및 그와 연결된 買辦에 종속된 문화가 아니라, 농민·노동자와 農工 출신의 병사들을 교육하고 또 그들에 의해 향유되는 문화를 구문화를 대체할 신문화이자 진정한 문화로서 제시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마오쩌둥의 문화 사상에서 드러나는 문화 주체와 내용에 있어서의 인민성 또는 대중성은 그가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중국 공산혁명의 성격을 나타내어 주는 특징이기도 하다. 특히 혁명의 주체로서 농민을 자각하고 농민을 통한 민족혁명으로써 공산혁명의 임무를 완수해 낸 것은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정통적 교의에서 벗어난 것으로서 중국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독특한 성격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 옌안 시기 마오쩌둥이 정립하고 발전한 민중문화관은 매우 구체적이고 명확한 것으로 그가 의미한 인민 또는 군중은 곧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농민과 노동자 및 병사를 의미하는 것이었고 문화 정책의 내용은 곧 농민과 노동자 및 병사를 위한 문화의 건설, 즉 문화 대중화였다. 마오쩌둥은 중국의 혁명이 실질적으로 농민 혁명이며, 신민주주의 정치는 실제 농민에게 권력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신민주주의는 바로 농민혁명주의였고 민중문화는 곧 농민문화를 제창하는 것이었

다.

오늘날의 중국은 여전히 농촌인구가 전체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거대한 농업 국가이다. 하지만 농촌과 농민은 개혁개방 이래 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경제성장이라는 전략적 정책으로 인해 도시 인구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농업생산물을 안정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역할을 강요받으며⁶³⁾ 경제성장으로 상징되는 국가발전의 주역 지위에서 소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지역별 농업 생산 비중의 증가가 지역경제성장을 저해하는 통계자료를 통해서도 파악할 수 있다.⁶⁴⁾ 이러한 농민의 소외 현상은 그들이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도 가장 낙후된 지역에서 가장 힘들게 살아온 역사적 단면을 보여준다. 이러한 농민에 대해 역대의 많은 왕조가 주목했지만 그들은 하나같이 농민을 혁명세력으로서만 파악했지 국가발전의 동인으로서 간주하지는 않았기에 왕조 교체 이후 또다시 농민을 착취의 대상으로 여기며 그들의 희생 위에 국가통치를 영위해 나갔다. 마오쩌둥 또한 농민을 혁명주체로 파악한 정치 인물이었다. 하지만 그는 농민이 노동자, 병사와 함께 혁명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사회속에서 향유하는 문화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즉 정치가, 사상가, 예술가, 작가 등은 지배계층의 문화가 아닌 민중 문화의 발전에 진력해야 하였고 민중이 대중문화의 주체가 되고 그들의 문화가 곧 사회와 국가의 문화가 될 때 비로소 농민을 포함한 민중이 사회의 주체이자 혁명의 주체이며 역사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63) 박충환, 「중국 도농관계의 역사적 궤적 - 근대전환기에서 사회주의시대까지」, 『중국학』, 제63집, 대한중국학회, 2018.06, pp.253-256.

64) 이종찬·박원양·제상영, 「중국 농업과 지역경제성장」, 『중국학』, 제66집, 2019.03, pp.338-342.

【참고문헌】

- 해리슨 E. 슬즈베리 저, 박윌라·박병덕 역, 『새로운 황제들』, 다섯수레, 2013.
- 에드거 스노 저, 홍수원·안양노·신흥범 역, 『중국의 붉은 별』, 두레, 2017.
- 모리스 메이스너 저, 김광린 외 역, 『毛澤東思想과 마르크스주의』, 소나무, 1988.
- 벤자민 슈워츠 저, 권영빈 역, 『중국공산주의운동사』, 형성사, 1983.
- 우노 시게아키 저, 김정화 역, 『중국공산당사』, 일월서각, 1984.
- 체스터 탄, 「毛澤東思想의 전개」, 민두기 편, 『中國現代史의 構造』, 청람, 1983.
- 다케우치 미노루 편저, 신현승 역, 『청년 모택동』, 논형, 2005.
- 김종원, 「5·4 운동기의 毛澤東의 사상과 활동」, 『부대사학』, 제14집, 부산사학회, 1990.06.
- 김은희, 「연안의 문화운동론과 지식인 연구 - 延安 前期의 文藝界를 중심으로」, 『중국문학』, 제94집, 2018.
- 김시준, 「‘延安文藝座談會에서의 講話’에 대하여」, 『中語中文學』, 제10집, 1988.10.
- 韓淸玉·李承熙, 「毛澤東文藝思想的當代認識」, 『국제지역학논총』, 제5집, 2012.06.
- 이태형, 「중국 문화정책의 통시적 고찰」, 『문화교류연구』, 제5집, 2016.12.
- 김형열, 「李大釗 民主思想의 發展過程 - 民衆觀의 變遷過程과 관련하여」, 『중국사연구』, 제34집, 중국사학회, 2005.02.
- 이종찬·박원양·제상영, 「중국 농업과 지역경제성장」, 『중국학』, 제66집, 대한중국학회, 2019.03.
- 박충환, 「중국 도농관계의 역사적 궤적 - 근대전환기에서 사회주의시대까지」, 『중국학』, 제63집, 대한중국학회, 2018.06.
- 李大釗, 『李大釗選集』,人民出版社, 1978.
- 毛澤東, 『毛澤東選集』,人民出版社(北京), 1969.
- 李 銳, 『毛澤東의 早期革命活動』, 湖南人民出版社, 1980.
- 蕭 三, 『毛澤東同志의 青少年時代和初期革命活動』, 中國青年出版社, 1980.
- 何 歡, 「毛澤東文化政策思想研究」, 河南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12.05.
- 沈文慧, 「賦與農民文化權利: 毛澤東文藝思想的基本訴求」, 『毛澤東思想研究』, 2010.05.
- Stuart Schram, *Mao Tse-tung*, Penguin Books, 1966.
- Benjamin A. Schwartz, *Chinese Communism and the Rise of Mao*, Cambridge, Harvard press, 1952.

【논문초록】

키워드 Key Words	중문	毛澤東, 文化思想, 文化政策, 民衆觀, 大衆運動		
	영문	Mao Zedong, Cultural Thought, Cultural Policy, Thought of People, Popular Movement		
<div>The Theoretical Origin of Cultural Thought of Mao Zedong and his Thought of People</div> <div>Kim, Hyong-Yol</div> <p>The greatest characteristic of Mao Zedong's cultural thought could be that it was in the public nature centered around the people. Mao Zedong presented the culture that would educate farmers, laborers and soldiers and would be consumed by them as a true culture that would replace the old culture.</p> <p>As such, the public character in cultural contents that Mao Zedong's cultural thought presented is characteristic of the Chinese Communist revolution that he successfully led. In particular, recognizing the peasants as the subject of the revolution and accomplishing the task of the Communist revolution as the national revolution through the peasants was a unique characteristic of China's proletarian revolution that was a departure from the orthodox doctrines of Marxism and Leninism.</p> <p>The thought of people's culture, established and developed by Mao Zedong in Yan'an period, was very specific and clear, and the people or crowds he meant was the widespread existence of peasants, workers and soldiers, and the contents of the cultural policy were the construction of culture for farmers and workers and soldiers, or cultural popularization. Mao Zedong thought that China's revolution was actually a peasant revolution, and that New Democracy politics was what gave real peasants power. Thus, the new democracy was peasant revolutionism, and the people's culture was to advocate peasant culture.</p>				
저 자 인적사항	성 명	김형열 / 金亨洌 / Kim Hyong-Yol		
	소 속	동의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사학과		
	Em@il	hyongyol@deu.ac.kr		
논 문 작성일시	투 고 일	2019년 08월 21일	심 사 일	2019년 08월 26일
	수 정 일	2019년 09월 09일	게재확정일	2019년 09월 17일